


2교시


2.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漢字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 (㉠)
◦ <小篆> <楷書>
◦ 厚也 從肉復聲 - 『說文解字』 -
◦ 君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心 - 『孟子』 -

(나)



◦ (㉡)
◦ <小篆> <楷書>
◦ 脊也 從肉北聲 - 『說文解字』 -
◦ 養其一指而失其肩(㉡)而不知也 則爲狼疾人也 - 『孟子』 -

*문자학: 카페 학습자료실 52번

52. 背也 从肉北聲 -『說文解字(背)』



3.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을 漢字로 쓰고, 밑줄 친 ㉡을 번역하시오. [2점]

(가) 成湯盤盂 著日新之規 武王戶席 題必戒之訓 … (중략) … 先聖鑒戒 其來久矣 故(㉠)
 者 名也 觀器必也正名 審用貴乎盛德 - 劉勰, 『文心雕龍』, 「銘箴」-

(나) (㉠)者 自名也 自名以稱揚其先祖之美 而明著之後世者也 爲先祖者 ㉡莫不有美焉
 莫不有惡焉 (㉠)之義 稱美而不稱惡 此孝子孝孫之心也 唯賢者能之 - 『禮記』, 「祭統」 -

***선행모의고사 4회**

6.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서 찾아 서술하고, 밑줄 친 ㉡에 대한 바람직한 서술 태도를 (다)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4점]

(가) 銘之義 稱美而不稱惡 此孝子孝孫之心也…(중략)…其先祖㉠無美而稱之 是誣也 有善而弗
 知 不明也 知而弗傳 不仁也 此三者 君子之所恥也 - 『禮記』-

(나) 予爲文 至㉡碑碣銘誌 苟不誠其人信其實 固拒而不受 心竊道曰 南山之石 其有何辜 忍雕
 損貞姿 書溢美之辭耶 及尹公之卒也 既得誠其人 又得其實 故不可以不敘 - 李奎報, 「登仕郎
 檢校尙書戶部侍郎 行尙書都官員 外郎賜紫金魚袋尹公墓誌銘」-

(다) 又碑誌文字 襲謬可笑者 無如易簣二字 夫易簣 固聖賢正終之事 然曾子之簣 乃季孫之賜
 非禮之物 故易之 所以爲正終也 夫人安得皆有季孫之簣 而必於將死焉易之耶 文章家用事
 固多此類 而至於碑誌文字 其體本自謹嚴 凡敘履歷生卒 惟當據實直書 不必引用古語 雖或
 用事 亦須詳審的當 - 金昌協, 「雜識」-

정답 ㉠ 南山의 돌이 그 무슨 죄가 있기에, 잔인하게 그 곁은 바탕에 새겨서 해쳐서, 과분하게 칭찬한 말을 쓸 것인가?

5. 다음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 계획>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교수·학습 계획>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짜임을 구별할 수 있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이해할 수 있다. ◦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수업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君子喜揚人善 小人喜揚人不善 - 『青城雜記』 - ② 以責人之心 責己 恕己之心 恕人 - 『小學』 - ③ 道吾善者 是吾賊 道吾惡者 是吾師 - 『明心寶鑑』 - ④ 人雖至愚 責人則明 雖有聰明 恕己則昏 - 『小學』 - 										
학습 지도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 어휘의 조어 방법을 이해하고, 한문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글의 (㉠)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나 핵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습한 문장을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핵심 사상을 찾아봄으로써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목 관계: 서술어와 목적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학습 내용> 恕己 - 수식 관계: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학습 내용> 吾賊 - 병렬 관계: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학습 내용> (㉡) ◦ 선인들의 수기의 자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15%;">수업 자료</td> <td>나를 수양하는 방법</td> </tr> <tr> <td>①</td> <td>남의 장점을 칭찬한다.</td> </tr> <tr> <td>②</td> <td>(㉢)(으)로 나를 꾸짖는다.</td> </tr> <tr> <td>③</td> <td>(㉣)이/가 나의 스승이다.</td> </tr> <tr> <td>④</td> <td>나를 용서함에 엄격해야 한다.</td> </tr> </table>	수업 자료	나를 수양하는 방법	①	남의 장점을 칭찬한다.	②	(㉢)(으)로 나를 꾸짖는다.	③	(㉣)이/가 나의 스승이다.	④	나를 용서함에 엄격해야 한다.
수업 자료	나를 수양하는 방법										
①	남의 장점을 칭찬한다.										
②	(㉢)(으)로 나를 꾸짖는다.										
③	(㉣)이/가 나의 스승이다.										
④	나를 용서함에 엄격해야 한다.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말을 ‘수업 내용’을 참고하여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단어를 ‘수업 자료’에서 찾아 漢字로 쓸 것.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업 자료’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	---

*카페 게시 자료

57	단문 격언	桃李不言 下自成蹊	사기	미래45,지학38
58	단문 격언	道吾善者 是吾賊 道吾惡者 是吾師	명심보감	지학38

7. 다음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계획>의 일부와 <활동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수업 계획>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전개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지도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한문 산문의 전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 자료	叟居東門外 口誦諺課稗說 如淑香蘇大成沈清薛仁貴等傳奇也 月初一日 坐第一橋下 二日 坐第二橋下 三日 坐梨峴 四日 坐校洞口 五日 坐大寺洞口 六日 坐鍾樓前 溯上既 自七日 沿而下 下而上 上而又下 終其月也 改月亦如之 而以善讀故 傍觀匝圍 夫至最喫緊 甚可聽之句節 忽默而無聲 人欲聽其下回 爭以錢投之 曰此乃邀錢法云 - 趙秀三, 『秋齋紀異』 -

<활동지>

1. 글의 전개 방식 이해하기		
구조	전개	수업 자료 정리
누가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
언제	1개월 동안	月初一日 ~ 終其月
어디서	제일 다리 밑 → 제이 다리 밑 → 이현 → 교동 입구 → 대사동 입구 → 종루 앞	第一橋下 → 第二橋下 → 梨峴 → 校洞口 → 大寺洞口 → 鍾樓前
무엇을	책	淑香 蘇大成 沈清 薛仁貴 等
어떻게	가장 긴요하여 들을 만한 중요한 곳에서 (㉡)	夫至最喫緊 甚可聽之句節 忽默而無聲
2. 한문 산문 서술 방식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문 산문은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이번 수업에 사용된 수업 자료처럼 (㉢)(이)나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는 글들은 주로 서사적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것을 <활동지>와 ‘수업 자료’를 참고하여 漢字로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말을 ‘수업 자료 정리’를 참고하여 풀이할 것.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것을 ‘수업 자료’에 근거하여 쓸 것.

*조선의 산문을 읽다 315~316쪽

「傳奇叟」

叟居東門外 口誦諺課稗說 如淑香蘇大成沈清薛仁貴等傳奇也 月初一日坐第一橋下 二日坐第二橋下 三日坐梨峴 四日坐校洞口 五日坐大寺洞口 六日坐鍾樓前 溯上既 自七日沿而下 下而上

[방법]

- ㉔정약용과 자식의 역할을 정해 상황을 재연해 보도록 한다.

9. 밑줄 친 ㉠의 폐단에 해당하는 2가지 특징을 (가)에서 찾아 서술하고,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나)에서 찾아 漢字로 쓰시오. [4점]

(가) 夫惟韓柳 猶屬之古 宋六子直[㉠]時文之雄也 然以其適用故舉世趨之 而未有能易其弊者 明之盛時 蓋亦有特起而振之者矣 然其所謂復古者 反不如六子之適用 故風氣一下雖有能者 亦莫之能復也 況文弊乎 然古今文之別 不難知也 古文簡而[㉡]暢 今文俚而晦 古文質而腴 今文華而枯

(나) 昔者 商之文鬼矣 周公峻其辭而振之 周之文僂矣 孔子[㉢]鬯其辭而導之 秦之文刻矣 馬遷易之以雅健 六朝之文靡矣 昌黎矯之以奇崛 五季之文萎矣 子瞻變之以雄肆 今之文膚而冗矣 ㉣若之何其振之 本之六經 以正其源 參之諸子以達其流 取之秦漢 以立其氣 資之韓蘇 以博其用 質之程朱 以尊其趣 夫如是則古今之制通 而文章之體備也

- 成大中, 「古文軌範序」 -

***조선시대 산문읽기 223쪽~224쪽**

古文之選 自昭明始 然取適乎時用 故體裁未純於古也 及茅氏之抄行 而古文亡矣 夫惟韓柳 猶屬之古 宋六子直時文之雄也 然以其適用 故舉世趨之 而未有能易其弊者 明之盛時 蓋亦有特起而振之者矣 然其所謂復古者 反不如六子之適用 故風氣一下 雖有能者 亦莫之能復也 況文弊乎 然古今文之別 不難知也 古文簡而暢 今文俚而晦 古文質而腴 今文華而枯 古文取材也富 今文取材也狹 古文立意也深 今文立意也淺 故古文似衍而實精 今文似捷而實冗 特古文艱於今文爾

<주석> 【抄】 뽑다 초 【宋六子】 歐陽脩·王安石·曾鞏·蘇洵·蘇軾·蘇轍 【學】 모두 거 【趨】 향하다 추 【弊】 폐단 폐 【暢】 =暢 자라다 창 【晦】 어둡다 회 【腴】 기름지다 유 【狹】 좁다 협 【衍】 넉넉하다 연 【捷】 빠르다 칩 【冗】 =冗 쓸데없다 용 【特】 다만 특 【艱】 어렵다 간

<국역> 古文의 選集은 소명태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당시에 쓰기에 적합한 것을 취했기 때문에, 체재가 옛날보다 순수하지 않았다. 茅坤이 뽑은 것(『唐宋八家文抄』)이 유행함에 미쳐서 고문이 없어졌다. 오직 韓愈와 柳宗元의 문장은 오히려 고문에 속하였으나, 송나라 육자의 문장은 다만 당시 글 가운데 최고일 뿐이다. 그러나 쓰기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것을 좇았으나, 그 폐단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아직 있지 않았다. 명나라가 융성할 때, 대개 또한 특별히 일어나서 그것(古文)을 떨치려는 자가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고문을 회복하려는 자들은 도리어 육자의 쓰기에 적합한 문장만 못했다. 그러므로 風도와 氣品이 한 번 낮아짐에, 비록 능한 자가 있더라도 또한 그것(古文)을 회복시킬 수 없었으니, 하물며 문장의 폐단에 있어서라? 그러나 고문과 금문의 구별은 알기가 어렵지 않다. 고문은 간결하나 뜻은 暢達되어 있고 금문은 속되나 이치에 어두우며, 고문은 질박하나 내용은 풍부하고 금문은 화려하나 내용이 메말랐으며, 고문은 재료를 취한 것이 풍부하나 금문은 재료를 취한 것이 좁으며, 고문은 뜻을 세운 것이 깊으나 금문은 뜻을 세운 것이 얇다. 그러므로 고문은 (재료가) 풍부한 듯하나 실은 정밀하고 금문은 (내용의 이해에 있어) 빠른 듯하나 실은 쓸데없으니, 다만 고문이 금문보다 어려울 뿐이다.

昔者商之文鬼矣 周公峻其辭而振之 周之文僂矣 孔子鬯其辭而導之 秦之文刻矣 馬遷易之以雅健 六朝之文靡矣 昌黎矯之以奇崛 五季之文萎矣 子瞻變之以雄肆 今之文膚而冗矣 若之何其振之本之六經 以正其源 參之諸子 以達其流 取之秦漢 以立其氣 資之韓蘇 以博其用 質之程朱 以尊

其趣 夫如是則古今之制通 而文章之體備矣 顧昭明之選 主於簡要 故幅尺狹 而意味淺 茅選又其下者也

<주석> 【峻】 엄하다 준 【僿】 무성의 새 【靡】 화려하다 미 【幅】 우뚝 솟다 굴 【五季(오계)] =五代 【菱】 시들다 위 【肆】 방자하다 사 【膚】 천박하다 부 【六經(육경)] 『詩經』·『書經』·『易經』·『春秋』·『禮記』·『樂記』 【參】 헤아리다 참 【質】 바르다 질 【趣】 뜻 취 【制】 체재 제 【幅尺(폭척)] 넓이와 길이

<국역> 옛날 상나라의 문장이 귀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자 주공이 그 말을 준엄하게 하여 진작시켰고, 주나라의 문장이 성의가 없자 공자가 그 말을 창달시켜 인도하였다. 진나라의 문장이 각박하자 사마천이 그것을 바꾸어 전아하고 건전하게 하였고, 육조의 문장이 화려하자 한유가 그것을 바로잡아 기이하고 웅장하게 하였고, 오대의 문장이 허약해지자 소동파가 그것을 변화시켜 웅장하고 방자하게 하였다. 지금의 문장이 천박하고 쓸데없으니, 어떻게 그것을 진작시켜야 하는가? 육경에 근본을 두고서 그 근원을 바로잡으며, 제자백가를 참고하여서 그 흐름을 창달시키며, 진한의 문장에서 취하여서 그 기를 세우며, 한유와 소동파의 문장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 적용을 넓히며, 정자와 주자의 문장에서 바르게 하여서 그 뜻을 높여야 한다. 대저 이와 같이 하면 고문과 금문의 체제가 통하고 문장의 체제가 갖추어질 것이다. 다만 소명태자가 뽑은 것은 간결과 요약을 주로 했으므로, 범위가 좁고 의미가 얁다. 모꾼이 뽑은 것은 더욱 그 아래다.

11. 의미상 밑줄 친 ㉠의 상대어로 쓰인 시어를 찾아 漢字로 쓰고, 밑줄 친 ㉡의 뜻을 쓰고, 밑줄 친 ㉢을 번역하시오. [4점]

我衣縑袍人㉠輕裘 人居華屋我圭竇
 ㉡天翁賦與本不齊 我不人嫌人我話
 今夕何夕是㉢元宵 筵秩侯家隨客後
 人間萬事何足論 身健且向尊前鬪
 君乎添酒復回燈 轟飲直到傳曉漏
 - 崔瀧, 「上元會浩齋得漏字」-

*고려시대 한시읽기 215쪽

102. 「上元會浩齋 得漏字」崔瀧

我衣縑袍人輕裘	내가 솜옷을 입었는데 남들은 가벼운 갖옷 입고
人居華屋我圭竇	남은 화려한 집에 사는데 나는 초라한 집에 살았다
天翁賦與本不齊	하늘이 준 것은 본래 가지런하지 않아
我不人嫌人我話	나는 사람을 꺼리지 않는데 사람들은 나를 욕한다
今夕何夕是元宵	이 밤이 어떤 밤인가? 대보름 밤인데
筵秩侯家隨客後	연회 베푼 후가에서 손님 뒤를 따르네
人間萬事何足論	인간 만사를 무슨 말할 거리 있나
身健且向尊前鬪	몸은 건강하니 우선 술동이 앞에서 술잔이나 다투어야지
君乎添酒復回燈	그대여, 술을 더 붓고 등불을 다시 켜게나
轟飲直到傳曉漏	새벽 파루 울릴 때까지 한껏 마시고 말리라

<주석> 【上元(상원)】 정월 대보름 【縑袍(온포)】 솜을 든 옷 【圭竇(규두)】 홀 모양으로 된 문 옆의 출입구로, 초라한 집을 말함 【賦】 주다 부 【嫌】 싫어하다 혐 【話】 욕보이다 후 【宵】 밤 소 【筵】 잔치 연 【尊】 술그릇 준 【轟飲(굉음)】 술을 많이 마심 【直】 곧 직 【漏】 물시계 루

<감상> 이 시는 정월 대보름날 호재에 모여 漏라는 韻字를 얻어서 지은 시로, 앞 4구까지는 세상 사람들과의 不和를 제시하고 나머지는 술에 도취한 것을 노래한 시이다.

전반부는 자신에 대한 연민과 세상에 대한 냉소가 混在되어 있으며,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불공정함, 부귀한 자들에 대한 배타성이 내포되어 있다. 후반부로 이어지면서 豪氣로운 어조로 바뀐다. 그런데 이 호기로운 어조 속에는 自虐的이며 슬픈 崔瀧의 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다.

3교시

1. 다음은 2022 개정 고등학교 한문 교육과정 ‘한자와 어휘’ 영역 중 성어를 학습하기 위한 <수업 계획>과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2점]

<수업 계획>

구분	내용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어의 뜻과 유래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성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지도상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가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성어의 속뜻을 알고 언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 내용>

교사 : 오늘은 여러분이 스스로 조사한 성어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세요.

학생 1 : 오늘은 유래가 있는 성어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鵠曰 今日不雨 明日不雨 卽有死蚌 蚌亦謂鵠曰 今日不出 明日不出 卽有死鵠 兩者不肯相舍 漁者 得而并擒之- 『戰國策』 -

... (중략) ...

여기에서 유래한 성어는 ‘漁夫之利’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학생 2 : 이 성어의 걸뜻은 무엇인가요?

학생 1 :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학생 3 : 성어는 속뜻을 잘 알고 활용해야 하는데, 이 성어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학생 1 : 글의 풀이와 성어의 걸뜻을 살펴보면, 이 성어의 속뜻은 ‘(㉠)’ 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성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봅시다.

... (하략)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말을 <수업 내용>을 참고하여 쓸 것.
- 수업에 사용된 교수·학습 방법을 <수업 계획>과 <수업 내용>을 참고하여 쓸 것.

*선행모의고사 1회(본문)

2.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고사성어를 漢字로 쓰고, 밑줄 친 ㉠의 품사를 쓰시오. [2점]

趙且伐燕 蘇代爲燕謂惠王曰 今者臣來 過易水 蚌方出曝 而鵠啄其肉 蚌合而拊其喙 鵠曰 今日不㉠雨 明日不雨 卽有死蚌 蚌亦謂鵠曰 今日不出 明日不出 卽有死鵠 兩者不肯相舍 漁者得而并禽之 今趙且伐燕 燕趙久相支 以弊大衆 臣恐強秦之爲漁父也 故願王之熟計之也 惠王曰 善 乃止 -『戰國策』-

2. 밑줄 친 ㉠의 품사를 쓰고, [註釋]에 의거하여 밑줄 친 ㉡의 생략된 주어를 찾아 漢字로 쓰시오. [2점]

[本文]
子適衛 冉有㉠僕 子曰 ㉡庶矣哉 冉有曰 既庶矣 又何加焉 曰 富之 曰 既富矣 又何加焉 曰 教之 - 『論語』 -
[註釋]
補曰 庶 衆也 入國見人民衆多 覺天下生靈之衆 歎曰 庶矣哉 - 『論語古今註』 -

***선행모의고사 9회**

2. 밑줄 친 ㉠의 품사를 쓰시오. [2점]

◦ 凡使奴㉠僕 先念飢寒 -『明心寶鑑』-
◦ 有餘者常譽人 不足者常毀人 ㉡僕嘗有語曰 勝於我者慕之 等於我者愛之 不及於我者憐之 天下可太平 -『青城雜記』-

4. 다음은 2022 개정 고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의 ‘문장’ 영역 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교과 협의록>과 <수업 계획>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교과 협의록>

김 교사 :	‘문장’ 영역 수업을 위한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수립된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 교사 :	네.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을 분석해야 한다는 항목과 화자의 의도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 통합되었습니다.
김 교사 :	그러네요. 그럼 문장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 교사 :	단어의 뜻, 어구나 문장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어순에 맞게 문장을 풀이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 교사 :	좋습니다. 그럼 협의한 내용대로 <수업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계획>

구분	내용
학 습 목표	◦문장의 구조와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 ◦글을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지도상 유의 사항	◦문장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장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단어의 뜻, 어구나 문장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문장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 업 자료	虛子曰 古人云天圓而地方 今夫子言 地體正圓 何也 實翁曰 ①甚矣 人之難曉也 萬物之成形 有圓而無方 況於地乎 月掩日而蝕於日 ㉠蝕體必圓 月體之圓也 地掩日而蝕於月 蝕體亦圓 地體之圓也 然則月蝕者 地之鑑也 ㉡見月蝕而不識地圓 是猶引鑑自照而不辨其面目也 不亦愚乎 - 洪大容, 『湛軒書』 「潑山問答」 -

<작성 방법>

- 밑줄 친 ①의 문장의 유형과 밑줄 친 ㉠의 문장의 구조를 ‘최 교사’의 말을 참고하여 각각 쓸 것.
- 밑줄 친 ㉡을 ‘박 교사’의 말을 참고하여 풀이할 것.

*선행모의고사12회(감탄문)

3. 밑줄 친 ①의 문장의 구조와 ㉠의 문장의 유형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①惟麟也不可 知	不可知則其謂之不祥也亦宜 雖然 麟之出 必有聖人在乎位 麟爲聖人出也 聖人者必知麟 麟之果不爲不祥也 又曰 麟之所以爲麟者以德 不以形 若麟之出 不待聖人 則
㉠其謂之不祥也亦宜哉	-韓愈 「獲麟解」

정답 ① 주술 ㉠ 감탄문

7. 밑줄 친 ㉠의 이유 2가지를 찾아 서술하고, 밑줄 친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4점]

公行子有子之喪 右師往弔 入門 有進而與右師言者 有就右師之位而與右師言者 ㉠孟子不與右師言 右師不悅曰 諸君子皆與驩言 孟子獨不與驩言 是簡驩也 孟子聞之 曰 禮 朝廷不歷位而相與言 不踰階而相揖也 我欲行禮 ㉡子敖以我爲簡 不亦異乎
*子敖：驩의 字 - 『孟子』 「離婁下」 -

*2023년 경서 강독

6.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것을 (가)에서 찾아 쓰고,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가)孟子爲卿於齊 出弔於滕 王使蓋大夫王驩 爲輔行 王驩朝暮見 反齊滕之路 未嘗與之言行事也 公孫丑曰 ㉠齊卿之位 不爲小矣 齊滕之路 不爲近矣 反之而未嘗與言行事 何也 曰 夫既或治之 予何言哉 -『孟子』 「公孫丑 下」-
(나)公行子有子之喪 右師往弔 入門 有進而與右師言者 有就右師之位而與右師言者 孟子不與右師言 右師不悅曰 諸君子皆與驩言 孟子獨不與驩言 是㉡簡驩 孟子聞之 曰 禮 朝廷不歷位而相與言 不踰階而相揖也 我欲行禮 子敖以我爲簡 不亦異乎 -『孟子』 「離婁 下」-